

III부. 신약과의 관계

1. 아가서의 지혜와 현대인들의 사랑에 대한 생각

아가서는 사랑이 무엇인가를 추구하도록 한다. 이 점에서 아가서는 사랑의 시의 형태로 주어진 ‘지혜의 책’이다.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말고 잠시 생각하도록 긴장을 주면서 이끌고 가다가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녀를 낳는 부부의 사랑이다. 아가서에서 직접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자세히 보면 부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나누는 사랑은 부부가 자녀를 낳는 것과 연결된다. 이러한 사랑은 여호와와 불로 말미암은 것이며 사람이 끝 수 없고 솔로몬의 영광과 부로도 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맹목적인 사랑, 즉 혼인에 대한 주님의 뜻은 도외시하고 사랑 자체를 추구하는 것이 그릇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친다. 아가서의 한 두 구절만을 따서 자기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그릇된 것이다. 아가서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도록 하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사실이 있다. 혼전(婚前) 혹은 혼외 관계는 참다운 사랑이 아니라고 가르친다. 동성애도 남녀의 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것은 사람의 정욕을 그릇된 방식으로 만족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상대가 없이 혼자 쾌락을 추구하는 것도 자기 안에 갇히는 것이 되고 그 결과 죄책감만 늘어난다.

아가서에는 여자와 남자의 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나온다. 그 묘사를 보면 부부의 사랑을 위한 것이지 객관적인 몸매를 묘사하는 것은 아니다. 술람미 여인은 거무스름하였지만 그 여인을 사랑하는 목동이 불 때에는 석류 한쪽과 같이 아름다웠다(1:6; 4:3). 부부의 사랑을 제외하고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추구하거나 혹은 한 사람에게만 보여야 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것은 고귀한 사랑을 추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교의 예식에서는 여자의 몸을 과시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가서에서는 부부의 관계에서만 그것을 이야기하였다. 낙원에서의 부끄러움이 없는 사랑을 상기시키는 아가서의 사랑은 무작위의 대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부부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요즈음 사람들의 옷 입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좀 더 생각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

아가서는 에덴의 배경에서만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아담에게 동물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은 그 가운데서 ‘뱀의 꾀’를 찾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셨을 때에 아담은 사랑의 노래를

불렀다. 그들은 에덴에서 매우 아름다운 짝이었을 것이다. 아가서에서도 화창한 봄날에 새와 각종 꽃들이 서로의 짝을 찾으면서 향기를 토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것을 배경으로 남녀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그 동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술람미 여인과 목동의 사랑이다. 여인과 남자의 몸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산에서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2. 교회와 가정

아가서는 주로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도 가르쳐 준다. 부부가 하나 됨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일치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에 대한 교훈은 그 백성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이고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를 가르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독점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들에게도 동질의 사랑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행음하고 나가서 하나님과 이혼하려고 하였다(겔 16장, 23장; 호 1-3장 등).

신약에서는 혼인의 비유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연합을 더 분명히 가르친다. 세례 요한도 그리스도의 오심을 혼인 잔치로 비유하면서 자신은 신랑의 친구가 갖는 기쁨을 누린다고 하였다(요 3:29). 예수님께서 행하신 최초의 이적도 가나의 혼인 잔치를 기쁨의 포도주로 복을 주시는 것이었고 역사의 마지막도 어린양의 혼인 잔치로 끝난다. 바울 사도도 최초의 혼인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가르쳤다(엡 5:31-32).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언약의 사랑 안에서 부부의 사랑도 의미를 지닌다.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없애고 진정한 혼인 관계에 이르도록 하려고 오셨다. 부부의 관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부부의 관계가 악하다고 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다(딤후 4:3). 또한 부부의 참된 사랑을 위하여 침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교훈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히 13:4).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죄를 없애고 진정한 혼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이다. 부부의 관계를 없애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3. 실제적인 지혜와 지침들

1) 나의 반쪽은?

아가서는 성에 대한 지침서가 아니고 사랑을 들어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 준다.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

됨을 배운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성적인 관계도 포함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와 불과 같으니라”(86)는 구절만을 인용하면서 어떤 여인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도저히 억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가서를 잘못 인용한 것이다. 아가서의 한 구절만을 인용하고 자기에겐 적용하기 때문이다. 아가서에서는 사랑을 일깨우기 전에 멈추고 사랑에 대하여서 생각해보고,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도록 가르치는 책이다. 따라서 아직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가서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읽을 필요가 있다.

아가서를 찬찬히 읽으면 여자와 남자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통념과 다름을 볼 수 있다. 아가서에 나오는 여인은 부드러울 뿐 아니라 강하고 지혜롭다. 여성다움을 지니면서도 건강한 여인으로 묘사되는데, 외모만 꾸미는 여인도 아니고, 또한 그러한 경향에 대한 반발로 외모를 무시하는 “씩씩하고 용감한” 여인도 아니다. 또한 무엇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소유하고 있어서 남자가 그 눈을 조금 돌려달라고 말할 정도이다.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여인이 아니라 망대와 같이 엄위함이 있는 여인이다. 솔로몬의 재물과 권력에 기대는 여인과 달리 자기의 포도원을 잘 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주는 여인이다.

아가서에 나오는 남자도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남자는 강할 뿐 아니라 부드럽다. 그는 재물이나 권력으로 사랑을 얻어 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는 부드럽게 여인의 마음에 이야기하여서 사랑을 얻는다. 사과나무 아래로 인도하여서 여인이 쉬게 하고 그 과일을 주어서 여인을 만족케 하는 사람이다(23).

혼인을 앞둔 사람들은 성경에서 나오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기준으로 혼인 상대를 찾아야 한다. 첫눈에 반한 것이 기준이 되어 혼인하면 자기의 인생을 한 순간의 감정에 맡기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 된다. 사람이 반한다는 것도 어떤 정보와 지식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자기가 받은 인상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혜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의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잠 31:30). 사람이 곱게 자란 것이 좋지만, 그것 자체가 선은 아니다. 사람은 곱게 자랐어도 죄인이고 어렵게 자랐어도 죄인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닫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과는 혼인의 서약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고백이 있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정

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고백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듯이,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예표하는 성찬에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사람과는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서 하나가 된다고 선언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혼인의 제도를 정하셨을 뿐 아니라 그 혼인식의 주례자가 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다. 따라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눌 수 없다. 우리가 혼인의 서약을 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음을 고백하는 일이다. 따라서 두 사람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하여서 분명한 깨달음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은 우리가 노력하여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솔로몬과 같은 재물과 권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아내는 여호와의 선물이다(잠 18:22; 19:14).

2) 사과나무 아래에서

아가서에서는 성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그것은 혼인 이후에 누리는 것으로 가르쳤다. 성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혼인한 부부에게도 도움이 된다. ‘잠근 동산과 잠근 우물과 봉한 샘’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넉넉히 누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더 깊고 풍성하여지는 것이다(4:12). 다른 사람에게는 줄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린 남자는 신방에서 나온 해처럼 자기의 길을 힘차게 달릴 것이다(시 19:5).

아가서는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인간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따라서 혼인만 하면 이전에 있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도 생각하게 한다. 아가서는 재물이나 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부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가르친다.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야 부부의 관계가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다. 또한 세상의 폭력으로 상처를 입은 사람을 감싸면서 사랑할 것도 가르친다. 성벽을 높이 쌓고 은으로 망대를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평화를 주는 것이 참다운 사랑임을 가르친다. 부부의 관계가 경제적인 문제로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부의 관계는 자녀와의 관계보다 우선적으로 중요하다. 두 사람의 관계를 위하여서 노력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을 줄 수 있다. 부부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에게도 결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아가서는 혼인한 사람들에게도 부부의 관계를 돌이켜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낙

원과 종말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나아갈 것을 가르친다.

3) 아직 독신으로 있는 경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을 하나로 지으셨다.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말은 남자와 여자가 각각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사람이 혼인한 후에 성격이 더 온전하여지는 것을 보아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됨을 나타내는 데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지만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았다고 기록한다. 이것은 여자가 혼자 있는 것도 좋지 않다는 뜻이다.

부부의 사랑에도 한계가 있다. 부부의 하나 됨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 됨을 나타내지만, 꼭 혼인을 한 자만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가족에 매여서 중요한 때에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고전 7:32-33).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나라는 시집가는 것이나 장가가는 것이 없는 나라이다(마 22:30; 눅 20:35). 혼인의 관계로써 나타내시려고 하는 것이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나타내는 혼인 제도는 없어질 것이라고 하셨다.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요인 때문에 혼자서 사는 교우도 있고, 아직 자기 배우자를 만나지 못해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사람은 혼인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혼인 관계를 나타낸다. 혼인한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혼인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혼인하면 그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 셈이 된다. 그러한 사람은 크게 돌이키지 않는 한, 자기의 약점을 남편이나 아내에게 짊어지우고 심지어 자녀에게까지 물려 준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혼인이 아름다운 것이지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아니다.

외적 요인에 의해서 혼자 있거나 주님을 위하는 심정으로 혼자 사는 경우도 있다(마 19:12). 이러한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자와 여자를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혼자 있는 사람으로서는 넘어야 할 큰 현실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을 도외시하고 이상적으로 독신 생활을 생각하면 나이가 들수록 어려움에 빠지기 쉽다. 다른 이유나 목적으로 혼자 있다고 하더라도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음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넘어서려고 다른 교우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천국을 위하여서 혼자 있기로 한 사람은 주님을 위한 사랑을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나타내면서 혼자 있는 자에게 쉽게 나타날 수 있는 결핍들을 넘어서려고 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 매인 사람보다도 혼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므로 그러한 일을 찾아서 함으로써 온전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할 것이다.

4. 어린양의 혼인 잔치를 향하여

성경에서 마지막 완성은 신부가 신랑을 부르는 말로 끝난다. 신부는 성신과 함께 “오라”고 말하고(계 22:17),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신랑의 말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한다(계 22:20). 이것은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는 말로 아가서가 끝나는 것과 비슷하다(아 8:14). 그날에 모든 성도는 외적인 장애가 없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서 살 것이다.